

광주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위한 업무담당자 설명회' 성료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 방향 공유·지원 사업 안내·담당자 역량 강화

광주시교육청이 단위학교 중심의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 방향 공유, 지원 사업 안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해 9~13일 광주교육연수원 강당 및 분임실에서 실시한 '2021 기초학력 보장 지원 위한 업무담당자 설명회'를 성료했다.

설명회를 통해 2021 광주시교육청의 기초학력 정책 방향 안내 및 단위학교에서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중점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기초학력 학습지원 대상 학생의 학습격차를 줄일 방침이다. 설명회는 '2021년 기초학력 보장 지원계획 안내' 및 '단위학교 기초학력 컨설팅' 과정으로 구성된다.

3일 동안 동·서부 초등학교 전체 업무담당

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개인 일정에 따라 요일을 선택할 수 있다.

'2021년 기초학력 보장 지원계획 안내' 과정은 교육청-학교 간 정책의 일관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광주시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 중점 정책 및 단위학교에서 꼭 추진해야 할 점에 대해 안내하고, 사전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단위학교 기초학력 컨설팅'은 6~7 학교별 분임으로 나눠 컨설팅 위원 및 업무담당자가 기초학력 정책 추진 사례 및 어려운 점, 정책 제언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유의 장으로 편성됐다.

광주우산초 김은주 교사는 "기초학력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 지 조금 막막했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학교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할 업무가 무엇이고, 나 혼자 아닌 학교 구성원이 어떻게 협력해야 할 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초등교육과 김수강 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격차 해소의 지름길은 기초학력 학습지원 대상 학생에 대한 담임교사의 관심과 역량, 학교 및 교육청의 개인별 맞춤형 지원이 중요하다"며 "이는 혼자 해결할 수 없으며 모두가 함께 고민·협력하며 해결하는 길밖에 없고, 앞으로도 기초학력 업무 담당자들이 학교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어려움이 없도록 소통의 시간을 갖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윤희기자

보성교육청, 아동학대예방 위한 지원의 오케스트라 만들다

아동학대 예방 및 사안 조기발견·공동 대응 및 지원 위한 아동학대 예방 업무 협약



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한관)은 지역 내 아동학대 예방 및 사안 조기발견, 공동 대응 및 지원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업무 협약을 지난 13일에 체결하였다.

최근 아동학대 사안들이 매우 다양해지고 심각해지고 있다. 여러 기관에서 이를 예방하

고 대처하기 위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독자적인 지원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아동들의 안전을 위한 협력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동의 의사결정에 따라 보성교육지원청에서는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아동학대 사안처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촘촘하고 체계적인 협력구조와, 온마을의 관심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체결식에서는 각 기관의 효율적인 업무 협력 방안 및 기관 업무 공유 등을 통해 앞으로의 아동 학대 예방에 최선을 다하려는 각 기관의 노력이 돋보였다.

협약식에 참여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대표는 "한 아이를 기르는데 온마을이 필요하다"는 아

프리카 속담에서 보듯이, 아동학대 예방 및 사안처리 지원에 대해서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보성교육지원청의 관심과 지금까지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앞으로의 아동학대 예방 및 사안처리 지원 업무협약에 대한 기대감을 비쳤다.

김한관 교육장은 "아동학대에 대한 대처 중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동의 안전과 아동의 교육 받을 권리에 대한 보장이다"며 "아동학대 예방 및 사안처리 지원을 위해 다양한 소리가 울려 하려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오케스트라처럼 아이들을 위한 아름다운 지원의 하모니를 울릴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덕순기자

순천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청년일창출 위한 실무자 협의회'

순천대학교(총장 고영진) 대학일자리센터는 최근 산학협력관 중회의실에서 청년층 신규일자리와 기업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지역 일자리 유관기관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순천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와 순천고용센터 및 청년 일자리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하여 2021년 정부의 주요 청년 일자리 정책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청년일자리 정책을 구직자에게 효과적으로 연계할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IT분야 청년 구직자 및 기업체의 매칭을 지원하는 '청년디지털 일자리사업'을 활용하여, 지역 청년들이 IT분야에

서 직무 경험을 쌓아 연관 분야로의 취업 지원을 촉진함과 동시에 지역 IT기업이 구인난을 극복할 구체적인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순천대는 협의를 통해 향후 광주·전남 지역 소재 200여 곳의 IT기업을 발굴하여 협력 관계를 맺고, 재학생 및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컨설팅트대면 상담 ▲정책 알림 온·오프라인 서포터즈 활동 등을 통해 일자리 정책 및 연계 사업 수혜 대상자를 선발하는 한편,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취업 동아리 제도를 통해 각종 자격증 취득 및 직무교육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순천=김승호기자

곡성 미래교육재단, 초등학생 문해력과 수해력 회복 위한 출발

곡성군 미래교육재단에서는 4월~12월까지 관내 초등학교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지원강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관내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대상으로 한글해독, 유창성 등 문해력 회복교육과 수 감각 연산 등 수해력 회복교육을 동시에 실시하여 초등학년때부터 학습 결손해소를 통한 기초학력 책임교육을 완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곡성군과 곡성교육지원청에서는 2019년과 2020년 기초학력 지원강사 이수교육을 통하여 33명의 기초학력 지원강사를 양성하였다.

곡성군 미래교육재단에서는 양성된 지원강사를 활용하여 2020년 하반기에는 10명의 강사를 투입하여 기초학력 미달학생 19명에 대한 문해력 회복교육을 실시하였고, 금년도에는 문해력 뿐만 아니라 수해력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15명의 강사를 투

입하여 20명의 학생에게 문해력과 수해력을 동시에 지원하는 기초학력 회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미래교육재단에서는 앞으로도 가정환경과 개인의 특성에 따른 배움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조기에 파악하고 정규 교육을 보조하여 한 학생도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곡성=양혜영기자

담양교육청, 찾아가는 상담 체험의 날 운영

심리적 지지기반 마련과 적극적 지원 활동 강화하기 위해 운영



담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주)은 신학기를 맞아 지난 3월부터 Wee클래스가 구축되지 않은 관내 초·중학교를 찾아가 '상담 체험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상담 체험의 날' 운영은 학기 초 우울·불안을 호소하는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심리

적 지지기반 마련과 적극적 지원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전문적인 상담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소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Wee센터 소개 및 이용 방법, 간이 심리검사와 걱정 인형 만들기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으로 진행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재중 학생은 "나 혼자만의 걱정이라 생각하고 고민했던 게 다른 친구들도 다하는 걱정이란 걸 알고 좀 안심이 됐고, 내 기분과 감정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본 경험이 참 좋았다"며 소감을 전했다.

담양=박종영기자

